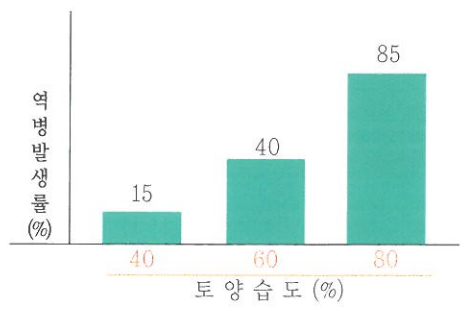


05 노지고추는 역병·탄저병 발생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.

- 역병은 발생초기에 뽑아 없애고 적용약제 토양 관주로 확산 방지
 - 탄저병은 장마가 끝난 직후에 예방 위주로 초기방제 철저
 - 생육 부진 포장은 요소 0.2%액을 5~7일 간격으로 2~3회 살포
 -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북주기를 실시하여 뿌리 노출 방지
 - 붉은 고추는 일찍 수확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
- ※ 피해가 심한 포장은 무, 배추 등 다른 작물로 대파



토양습도에 따른 역병 발생률



고추역병 발생포장



장마가 끝나는 즉시 **고온**에 대비합시다!

자료발간 :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

장마 후 폭염에 대비한 주요 채소류 안전재배 관리요령

01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!

- 강한 햇볕으로 뿌리 기능이 약화된 식물체는 시듦 현상이 나타남
- 시설 내 환기가 안 되면 고온장해가 나타나고 당도가 낮아짐
- 급격한 토양수분 변화로 열매 터짐이 발생함
- 장마가 끝난 뒤에는 강한 햇볕으로 햇볕 데임 증상이 발생함
- 열매가 잘 달리지 않고 떨어지는 등 잘 자라지 않음

02 강한 햇볕을 가려주고 병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합니다.

- 햇볕이 강할 때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햇볕 데임 피해 예방
-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요소 0.2%액(물20L에 40g) 잎에 뿌리기
-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제때 뿌려서 방제
 - 병든 식물체는 일찍 없애 병 발생 전염원을 차단
- 환기팬을 가동하고 피복재를 천창까지 열어 고온장해 예방



토마토 시들음병



수박 햇볕 데임 열매



오이 암꽃 안 생김